

피끓는 시간 되찾을 터
젊은 날의 가치 여전히 유효,
낮은 곳 살피며



신학자이자 출판인인 김성재 교수(55)는 연초 며칠 동안 꽤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월간 〈살림〉이 1월부터 휴간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서였다. 〈살림〉은 계간 〈신학사상〉과 함께 인간 김성재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모세혈관 같은 것인 데다 이 두 잡지의 태생은 그의 정신적 사부역이었던 고 안병무 선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살림〉은 안병무 선생이 〈현준〉이란 제호로 창간했으나 1980년 전두환 정권 때 〈창작과 비평〉 등과 함께 폐간됐다가 복간될 당시 〈살림〉으로 제호를 바꾼, 이른바 민중신학자 안병무 사단의 적통을 상징하는 귀한 잡지이다. 독재와 맞서 싸우던 시대, 신경림 김지하 백낙청 강만길 등 민주화 투쟁 인사들의 절개 있는 글들은 한때 이 잡

그는 열성 운동가였다.

지를 펼쳐드는 기쁨이었다.

그러나 요즘 그는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는 국민의 정부에서 4년여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청와대 민정수석,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지내온 터였는데 ‘일을 맡기면 못해 내는 게 없다’는 소리를 듣는 그도 ‘조용히 교수로 돌아가고 싶다’며 신학교육자 본연의 길에 대한 욕심을 비쳤다. 그 가운데에는 공직을 맡느라 김상근 목사에게 운영을 부탁했던 잡지 출판과 단행본 출판(한국신학연구소, 현존사)을 활성화하는 일도 포함돼 있다.

“장관 자리라는 게 일의 성격이나 시간 공간적인 측면에서 내 삶과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더군요. 그러나 공무원들과의 일체감 형성에도 문제가 없었고, 민중과 더불어 살겠다는 내 의지에 변화도 없었습니다. 공직 경험들이 내 삶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의 자유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이루어낸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면서, 험난했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공직을 떠나더라도 민중신학자로서, 저술가로서 어떻게 일을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게 된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신학자로 규정되는 그에게는 늘 ‘낮은 곳을 향하는’ 이란 수식어가 붙곤 한다. 그 자신에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 수식어에 대해 그러나 그는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다. 다섯 살 때 다리를 다친 이후 장애인으로 살아온 그는 아직도 어린 시절 사경을 헤매면서 올렸던 기도를 기억하며 그 기도에 복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이기 때문이다.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의 이런 다짐은 그다니던 교회에서 문익환 목사를 만난 것을 계기로 ‘실천’의 마당을 찾게 되고, 그는 자연스레 1960, 70년대 민중운동의 한 근거지였던 한신대에 입학원서를 내게 된다. 문익환 운동화 안병무 서남동 등 떠르르한 민중신학이론가들의 숲에 들어가 묘목이 되었던 셈이다. 그는 한신대 67학번인데 이 무렵 이후 기독교계 진보세력의 축을 이룬 김대준 안병무 운동화 목사의 입에서는 한결 같이 ‘김성재가 수제자다’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시기 이후 그는 열성 운동가였다. 대학졸업반 때는 청계천에서 야학을 했고, 유신체제를 비판하다 쫓겨난 교수 교사들이 대학 퇴학생들을 모아 강의를 했던 「선교교육원」의 간사 역할을 했고, 문익환 목사가 소외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 방학동에 만든 「새벽의 집」에 합류, 민주화운동 인사 혹은 그 가족들과 라면 끓여 먹어 가며 지냈다. 거기서 그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삶을 위해 지식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더 깊이 개인開眼 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됐을 때 직원들에게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의 차이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왕과 귀족 중심이고, 민속박물관은 서민 중심 아니냐 이거였죠. 나는 지금도 유물 발굴이 왕조사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졸업반 때는 청계천에서 야학을 했고, 유신체제를 비판하다 쫓겨난 교수 교사들이 대학 퇴학생들을 모아 강의를 했던 「선교교육원」의 간사 역할을 했고, 문익환 목사가 소외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 방학동에 만든 「새벽의 집」에 합류, 민주화운동 인사 혹은 그 가족들과 라면 끓여 먹어 가며 지냈다.

그의 유물관 내지 문화관은 명쾌하다. 성城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만으로 시대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저, 성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쌓였을 때 5천 년 역사의 흐름이 일목요연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시각을 전하고 공유하기 위해 그는 문화관광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론에서 근거한다. 일의 과다가 중요하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셈인데, 여기에는 문화란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런 문화가 되어야 모든 영역에서 문화가 생산적 요소가 된다는 철

미력이나마 보탰다고 자부한다.
실체를 더욱 깊이 알게 돼 4·3특별법이 통과되는 데
현기영 씨를 만났고, 그를 통해 제주 4·3사건의 작가
실제로 그는 여행을 통해 <순이 삼촌>의 작가
이해하는 눈을 틔워준다는 것이다.
여행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기쁨은 길에서, 산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과 세상을
산을 오르는 또 하나의 이유로 그는 사람을 들었다.

학이 배어 있다. 5천 년 역사에 대해 관념적으로만 자부하지 말고 그 역사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연구해야 문화경제, 문화외교, 문화통일의 방법론이 도출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문화를 공급한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지론 역시 맥은 같다. 공급하려 하지 말고 수요를 예측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라는 것인데, 그 시각 역시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관돼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빼어난 문화행정가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떠나 얘기하면 신학자 김성재는 꽤 소년 같은 사람이다. 1948년생인데도 외모로 치면 6·25를 거쳐 10월 유신을 겪고,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서면서 고문을 당하고 쫓겨나던 사람 같지 않게 동안인 데다 세상에 대한 고뇌 없이 출세가도를 달려온 인텔

리겐치아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향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세상을 주유한 열정이 끓어 넘친다. 그 열정으로 그는 전국의 산을 거의 다 올랐다.

“성치 않은 다리로 산을 열심히 오른 것은 내 의지의 하나였지요. 단지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를 확인하는 준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산을 오르는 또 하나의 이유로 그는 사람을 들었다. 여행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기쁨은 길에서, 산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틔워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여행을 통해 <순이 삼촌>의 작가 현기영 씨를 만났고, 그를 통해 제주 4·3사건의 실체를 더욱 깊이 알게 돼 4·3특별법이 통과되는 데 미력이나마 보탰다고 자부한다. 그는 미력이라고 했지만 제주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예도민증을 주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산과 여행은 이렇게 다의적이다. 건성으로 유람하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 사람을 껴안고, 그가 살아온 세월을 껴안는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다.

그는 근래들어 황대권 씨의 《야생초 편지》, 김병종 씨의 《화첩기행》, 김지하 씨의 《화두》를 읽었다. 특히 황대권 씨의 《야생초 편지》는 나오기 무섭게 단숨에 읽었는데, 황대권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그의 어머니와 함께 탄원서를 내는 데도 참여한 기억이 떠올라 찡하더라고 했다.

그는 실천하는 민중들의 삶 속에

있다가 4년여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장관 자리까지 오른 후 교수 겸 출판 저술인으로 돌아갔다. 그의 말대로 남의 웃을 입은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한켠으로는 걱정이 되는 듯도 했다.

“단행본과 잡지를 낼 때 경험한 건데, 여기저기서 강의하고 받은 강연료, 원고료, 이렇게 저렇게 다 보태도 출판사 운영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신학 관련 책을 많이 냈는데, 출판을 다시 시작해도 가시밭길 걷기를 걸어야 할 겁니다. 내가 <출판저널> 애독자였는데, <출판저널>에서도 좀 도와줘야 합니다.”

그는 우선 신학, 그 중에서도 문명 사적 변화에 대한 책을 한 권 쓸 참이고, 공직 경험을 책으로 묶는 작업도 해볼 참이다. 흔치 않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야말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주중에는 생명의 전화에서 자원봉사를, 주말에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도 좀 거들 수 있게 될지…….”

공교롭게도 3월은 1980년 봄의 주역들이 정치 사회 문화의 핵으로 포진하고 모든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점이다. 이 시기에 제자리를 찾아 조용히 돌아간 장관 출신 신학자 김성재는 “내 짧은 날의 정신적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더 깊고 넓어진 눈으로 민중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방법론을 찾겠다고 말했다. ■■■

취재 임동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